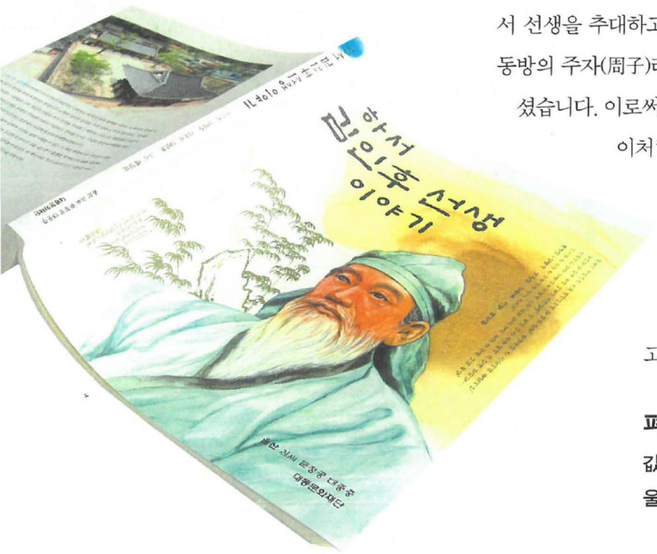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어린 청소년들이 하서 선생의 삶과 문학과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하서 선생의 일대기



하늘이 우리나라 도와 태어나게 한 하서선생

하서선생은 16세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도학자로 후대 성리학자들의 존중을 한몸에 받아온 분입니다.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두루 갖춘 오직 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후대의 사람들은 선비 정신의 사표로 하서 선생을 추대하고 백대의 스승으로 받들었던 것입니다. 정조대왕은 하서 선생을 동방의 주자(周子)라고 극찬하고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 배향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하서 선생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하서 선생의 삶과 문학과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적인 온갖 부조리와 맞서서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선비의 길을 걸으면서 훌륭한 학자로서의 삶을 깨끗하게 마치신 위대한 하서 선생의 삶을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어린 청소년들의 인격 성장에 기여하고,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큰 꿈을 꾸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펴낸이 | 김택수　지은이 | 김병효　그림 | 백정환

값 12,000원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 대동문화재단

檀紀 4340년 (西紀 2007) 6月 20日 發刊. 印刷_ 大東文化　第 9 號

筆巖書院 山仰會報

筆巖書院　山仰會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巖里 377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長 朴鍾達　編輯主幹 : 金梓洙

河西 金麟厚 先生이 21세기 儒林에게 던지는 메시지

변 온 섭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1. 先生의 生涯와 學問

文正公 河西 金麟厚(1510-1560) 선생은 이 고장 長城이 낳은 위대한 賢人이시다.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두루 겸비한 선생께서는 東國 18賢으로서 문묘에 배향되었다.

尤庵 宋時烈은 선생을 기려 "우리나라의 인물 가운데 도덕과 절의와 문장을 모두 지니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은 얼마 안된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河西 金先生을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는 거의 이에 가까운 분이다."라고 하였다.

栗谷 李珥도 선생에 대해 "맑은 물에 핀 연꽃 같고 비 갠 뒤 맑은 바람 속의 밝은 달과 같다. 出處가 올바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正祖大王은 선생을 文廟에 從祀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선포한 敎書에서 "경은 海東의 濂溪이자 湖南의 孔子이다." "내면에 쌓은 강건하고 곧고 단정한 성품은 嚴冬雪寒의 松栢이었고, 밖으로 드러난 빛나고 온화하고 순수한 자태는 맑은 물 위의 연꽃이었다."라고 칭송했다.

이어 정조대왕은 "(仁宗이 東宮일 적에) 東宮이 깊이 신임하여 이미 그림에다 뜻을 담아서 주었고, 숙직하는 관서로 찾아와서 강론하는 이외에 특별히 마음을 털어놓곤 했었다. 보필하는 신하로서 은연중에 마음이 부합한 것은 殷나라 高宗이 부열(傅說)을 얻은 것과도 같았고, 임금과 백성들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맡고 나선 것은 伊尹이 成湯을 만난 것과도 같았다.

아, 하늘이 아직 평안하게 다스려지기를 바라지 않아 대 현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끝내 깊은 산 속에 그를 묻는 슬픔으로 피눈물을 뿌렸다."라며 선생의 충성과 곧은 절개를 기리고 있다.

또한 정조대왕은 선생이 경륜을 다 펴지 못하고 별세한 것을 안타까이 여겨 "다행히도 왕의 교화를 보필하는 적임자가 있어 크게 빛나는 아름다운 정사를 당시에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마침내 지방에서 영영 세상을 떠나고 말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성대하게 겸비한 도덕과 절개는 분명 三代 때의 전형이었고, 임금과 신하, 아비와 아들의 윤리를 밝힌 것은 진실로 천년 동안 이어갈 표준이 되었다."라고 격찬했다.

2. 뜨거운 節義

河西 金麟厚 선생은 1543년 가을에 인종이 東宮 시절일 때 그의 스승으로서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임금과 신하로서 은연중에 기약이 이루어져 인종은 뜻을 담아 대나무를 그린 墨畵와 朱子大全 한 질을

직접 하사하였다. 선생은 이에 대나무를 君主인 인종으로 대나무 주위의 돌을 臣下인 자신으로 해석한 시 한 편을 지어 자신의 충심을 보였다. 선생은 '상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한' 어진 인종이 堯舜의 정치를 이룩하리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종은 보위에 오른지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말았다. 寶齡 31세였다. 선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545년 7월 인종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이복동생인 明宗이 왕위에 올랐다. 당시 명종은 나이가 어려 文定王后 尹氏가 垂簾聽政을 했다. 그에 따라 文定王后의 친정 동생인 윤원형 등 外戚이 사실상 정권을 틀어쥐고 발호하기 시작했다. 明宗 元年에 외척들은 권력을 거머쥐자마자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그것이 바로 乙巳士禍이다. 그 당시 士禍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생의 사상적 동지요 절친한 벗들이었다.

선생은 乙巳士禍 이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落鄕, 병을 칭탁하여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은 士林을 박해하혔던 명종 때의 집권자들에 대해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다. 선생의 그러한 태도는 불의한 戚臣에 반대하는 士林 公論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선생은 臨終 직전 자제들에게 明宗이 제수한 벼슬을 位牌에 쓰지 말라고 엄히 당부했다고 한다. 선생은 理想政治의 꿈을 함께 나누었던 仁宗이 내려준 마지막 벼슬인 玉果縣監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이다.

正祖大王은 이 같은 선생의 節義를 높이 사 "7월 깊은 산중에서 蒼梧의 원통한 눈물을 뿌렸고, 한 조각 붉은 깃발에 玉果 縣令의 옛 직함을 그대로 썼다. 아, 당시에 미처 사업을 펴지는 못했으나 공로와 교화는 아직도 후학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3. 隱遁과 悲憤의 歲月

낙향 이후 河西 선생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지극히 非政治的으로 비쳐지는 일상적 처신이야말로 士林政治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한다. 15-16세기에 일련의 士禍를 거치면서 사림정치는 조선 정치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無對應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자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그 당시 明宗의 外戚 세력은 民心 수습 차원에서 嶺南의 退溪와 湖南의 河西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退溪와 마찬가지로 河西 선생은 거듭된 조정의 요청을 모두 물리쳤다.

이와 관련해 역설적인 장면이 朝鮮王朝實錄에 보인다. 史草를 담당한 사관이 군주의 善政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대목이다. "史臣은 논한다. 儒臣으로 李滉·金麟厚 같은 이가 있었으나, 발탁하여 등용해서 論思하는 위치에 두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시골로 퇴거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크게 잘못된 政事가 아니겠는가..."

선생은 鄕里에 묻혀 後進을 양성할 때 매년 仁宗의 忌日이 되면 집 남쪽 산 속에 들어가 痛哭하였다. 또 讀書를 하거나 후진들과 講學을 하다가도 悲憤의 대목을 접하면 독서와 강학을 잠시 멈추고 술과 詩로 격앙된 감정을 달랬다고 한다. 悲憤은 일종의 분노이다. 하지만 혈기 가득한 분노가 아니라 義로운 憤怒이다. 悲憤은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느끼는 격렬한 감정이다.

선생의 悲憤은 선생이 남긴 수 많은 시 가운데 屈原, 岳飛 그리고 陶淵明과 관련된 시들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중국 역사에서 忠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흔히 節制를 미덕으로 여기는 道學者들의 일반적 성향과 달리, 선생은 때로는 격렬한 비분의 감정과 직설적 표현으로 뒤틀린 현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곤 했다.

4. 正義感에 불탄 先導的 勇氣

河西 선생은 1540년 中宗 35년, 선생의 나이 31세 때 文科에 급제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만인 1543년에 經筵에 참여했다. 선생은 經筵을 통해 국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자 조정의 禁忌를 깨고 己卯士禍로 희생된 靜菴 趙光祖 등의 복권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했다. 정암 조광조 등은 중종때 '소학'의 생활화를 통한 도학적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이들이었다.

중종 38년인 1543년 7월 20일. 선생이 中宗에게 아뢴 말씀을 조선왕조실록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己卯年 사람은 한때 한 일이 죄다 옳지는 못하나, 그 본심은 터럭만큼도 나라를 속인 것이 없는데도 마침내 무거운 죄를 입었습니다. 그 뒤에 죄 지은 사람 중에는 大逆不道하여 죽어도 죄가 남을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어 혹 復職된 자가 있는데, 己卯年 사람은 오히려 上恩을 입지 못하니, 신은 홀로 便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숭상하던 '小學', '鄕約'의 글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습니다..."

선생이 己卯士禍의 가해 당사자인 중종에게 조광조 등의 伸寃을 건의한 것은 실로 逆鱗의 直諫이 아닐 수 없다. 不正을 正으로 바꾸고자 한 신념과 용기의 발언이었다.

己卯士禍가 있고나서 조정에서는 감히 조광조 등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겨우 관직을 시작한 서생이 조광조를 비롯한 己卯士禍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훗날 正祖大王은 선생을 정암 조광조와 연관지어 "이달 8일에 贈 領議政 文正公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하는 바이니, 나라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고 선비들이 모두 귀의할 곳이 생겼다. 孔子·程子·朱子의 道統을 접하여 그 연원이 멀기에 靜庵·退溪·牛溪·栗谷의 반열에 올려서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바이다. 아, 文이 여기에서 충분히 징험되고, 道가 이로 말미암아 추락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5. 21世紀 韓國 儒林에게 던지는 先生의 메시지

河西 선생의 저작 가운데 '百聯抄解'라는 시집이 있다. 이것은 선생이 明宗 연간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名詩 100구를 모아 한글로 번역한 시집이다. 이 책은 조선 중기 國文學 연구에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선생은 당시 '개글'로 치부되던 우리의 한글로 어려운 漢詩를 번역했다. 한글만 깨치면 누구나 한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로서 매우 보기 드문 일로써 선생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선생의 이러한 民衆 지향적인 성향은 그가 평소 '小學'의 생활화를 신념으로 가졌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철학을 지향한 것이다. 선생의 '小學' 일상화는 그

자체가 이미 改革的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선생이 펴낸 '百聯抄解' 의 첫 시구는 '花笑檻前聲未聽 鳥啼林下淚難看' 입니다. '꽃이 난간 앞에서 웃고 있건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가 수풀에서 울고 있건만 눈물은 보이지 않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단순히 꽃과 새라는 자연물과 관련된 정서를 담고 있다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오늘날 한국 유림계의 현실과 그 당시 河西 선생이 처한 현실이 교차돼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필 선생은 이 구절을 맨 앞에 갖다 놓았을까요? 河西 선생의 시대는 戚臣들이 政事를 농락함으로써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儒林界는 私慾에 가득 찬 일부 獨善的 지도자들이 滅門의 禍를 자초하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갖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꽃처럼 예쁜 백성들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산업현장과 들판에서 고된 노동에 지친 백성들이 새처럼 비탄에 젖어 울어대건만, 그 피눈물이 보이지 않네. 한 조각 希望도 보이지 않고, 애끓는 絕望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現實이 완전히 歪曲되고 있다는 시인의 告發입니다. 眞實이 가려져 아무도 그 眞實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悲痛한 現實에 대한 선생의 강력한 告發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생이 가신 지 44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證左일 것입니다.

斯文의 同志 여러분!

正義로운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行動하는 儒林이 됩시다.

중장년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침서

태어남에 감사하기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수억 대의 경쟁을 거친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도 엄청남 사건이며, 자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기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찾아내어 죽을 때까지 자신을 활짝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의식 넓히기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화날 일도, 이해 못할 일도 없다.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보자.

준비하며 살기

경제적인 노후 대책은 물론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저축해야 한다. 심지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유혹을 넘어서고 살기

지나친 욕심, 분수에 넘치는 자리, 정도를 넘는 음식물, 자신의 인격에 넘치는 재물 등은 삼가야 한다. 남들이 가졌다고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일생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결정한 것은 후회말기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하다고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자

충분히 인내하고 살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경우라도 바위처럼 참고 넘어서야 한다. 눈 앞에 언짢은 일, 손해 보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도 묵묵히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성(誠)의 생활을 하기

항상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며 윗사람,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일에 임하기 전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애정을 주고 받기

애정받기를 바란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애정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기대는 최소로, 노력은 최대로 하기

댓가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과정에 기쁨을 맛볼 수 있다.

河西先生, 梅花를 노래하다

河西先生은 꽃을 가꾸기를 매우 좋아하셨다. 분에다 심어 가꾸기도 하고 나무 둥걸로 산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기도 하셨다. 맥동 집 동쪽 언덕에 외연을 지어 〈百花亭〉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얼마나 꽃을 좋아하셨는지 알 수 있다. 벗이나 제자들이 꽃나무를 선물하면 그리 좋아하셨다. 매화를 읊은 시가 13수, 납매를 읊은 시가 3수이다. 그 가운데서 3수를 골라 여기에 싣는다. (편집자)

매화가 지다(落梅)

새벽바람 저문 비라 동산에 눈 휘날려
고요 속에 향 녹으니 반혼이 아니 되네.
홀로 서서 불러대며 만류해도 헛일인데
만산의 외론 달은 더구나 황혼일레.
晨風暮雨雪飄園　寂寂香銷未返魂
佇立驚呼留不得　萬山孤月又黃昏

서로 생각하던 하룻밤에 매화가 피다

라는 옛시로 제를 하여 제군을 시켜 짓게 하고 내 또한 따라 지어 보여주다(以相思一夜梅花發爲題令諸君製之余亦隨賦以示)

미인을 다시 만날 길이 없으니
한번가면 어느 때 돌아오려나.
이별 후로 세월이 얼마나 갔지
거울 속의 홍안은 하마 시들어.
밝은 달은 찼다 또 이지러지니
나의 한은 억제하기 어렵군 그래
벽에 걸린 녹기(綠綺)라 저 거문고는
줄에서 먼지만이 흩날리누나.
눈을 들어 산하를 멀리 바라니
눈과 얼음 속절없이 우뚝만 하니.
긴긴 밤 꿈조차 이루지 못해
머리 긁고 일어나 서성대노라.
역력히 와 귀엽게도 방긋 웃으니
창 앞에 핀 매화라고 생각 못했지.
정신이 갑작스레 서로 통하여
닫겼던 눈 그대 위해 반갑게 떴네.
삼(參)별은 비끼어라 달마저 지니
취우(翠羽)새는 놀래어 깃 치는 소리.
허튼 시름 또 다시 어수선하니
아득아득 저절로 슬픔 생겨라.
미뤄두고 이 꽃 아래 우선 나아가
저 황금 술잔에 술이나 딸세.

美人不可見　一去何當廻
別來閱星霜　鏡裏朱顔摧
姮娥盈又缺　寸恨終難裁
壁間綠綺琴　絃索生塵埃
極目望山河　氷雪空崔嵬

遙夜不成夢　搔首起徘徊
宛然巧笑瑳　忘却窓前梅
精神忽交通　青眼爲君開
參橫月又落　翠羽驚皓皚
閒愁復撩亂　茫然自生哀
且就此花下　酌彼黃金罍

매화를 희롱하다 (戱梅)

뜨락의 매화꽃이 맨 처음 피어날 때
한두송이 앉아보니 눈과 마음 환하더군.
뒤미쳐 천만송이 어지러이 피어나니
휘날리는 함박눈이 무더기로 엉겼구려.
울가에 기대서서 차고 고움 하노리며
봄바람을 마주 대해 유연히 웃음 웃네.
맑고 여윔 제격인양 유독(幽獨)에 치우치니
향기 찾는 나비 따윈 눈 씻고도 못 볼레라.
말 없는 쓸쓸이라 괴론 몰골 하도 할싸
풍광조차 냉담한데 부질없이 머뭇머뭇.
하늘바람 살랑살랑 한번 불고 지나가니
구경꾼 술잔 위에 짙은 향기 떠오르네.
술잔을 기울이며 묻노라 네는 뉜가
산 구석에 홀로 있어 고운 절개 지키느뇨.
푸른 이끼 앞에 가득 지기(知己)가 끊어지니
세속 사람 어울리긴 저절로 싫어져라.
뭉게뭉게 일어나는 삼만 길의 붉은 티끌
흰 바탕 변할까봐 신령이 시기하네.
어디메 궁한 숲에 고방(孤芳)을 의탁하지
하루아침 거센 바람 꺾여짐을 보고말리.
장안이라 소년들은 꽃이라면 좋아하여
만자(萬紫) 천홍(千紅) 작을세라 모두 모아 가꾸누나.
요황(姚黃)이라 위자(魏紫)는 그 중에도 절승하니
당에 가득 손님 모여 금술잔 기울이네.
조작(鳥雀)이 자주 와서 흔들까봐 염려하여
탄환 끼고 기다리며 단시(丹腮)를 아낀다오.
푸른 털이 다 빠져서 진흙 속에 묻히는데
그대 홀로 적막하다 무엇을 하는 건가.
동산(東山)에 달 오르자 고영(孤影)을 위문하니
때와 날은 멈추잖아 세월을 재촉하네.
그대를 가져다가 오릉화(五陵花)에 견준다면
한차례 웃음에도 차지를 않다마다.
아 슬퍼라 다시 또 슬퍼라
내 홀로 너를 위해 길이 서로 애처로워.
잔을 들어 세 번 권해 네 시름 풀어주마
하얀 바탕 하마인들 황토에 버릴손가.
북산이라 저 언덕에 내 말을 달려가서
너를 위해 집을 짓자 재목을 구할게다.
목란(木蘭)으로 기둥 삼고 푸른 연잎 일산 삼고
계지(桂枝)를 또 가져다 문설주를 만들고서.
멀리 자란(紫鸞)을 맞아 여기에 오게 하여
높은 가지 깃을 들어 한가로이 나래 치게.
손을 들어 저 서쪽의 나는 해를 붙들어다
노끈으로 칭칭 감아 질 때가 없이 하고.
길이길이 안 잊으며 서로서로 서성대어
내 몸은 늙지 않아 어린애와 항상 같고.
그대 역시 오래오래 천파(天葩)를 떠받들어
월계(月桂)와 멀리 비쳐 추위 속에 우뚝한데.
놀빛 띤 옷소매를 나풀나풀 높이 들며
맑은 공기 마시어라 구름은 대(臺)가 되면.
인간이라 팔만 칠천 기나긴 세월쯤은
놀랜 번개 바람 따라 흩어질 뿐이겠소.
맑은 향기 끊임없이 나의 곁에 풍겨와서
코와 낯에 스며들면 그 정이야 더 말하리.
그대는 내가 붙고 나는 그대 붙으니
봉래산 어디멘가 신선님이 날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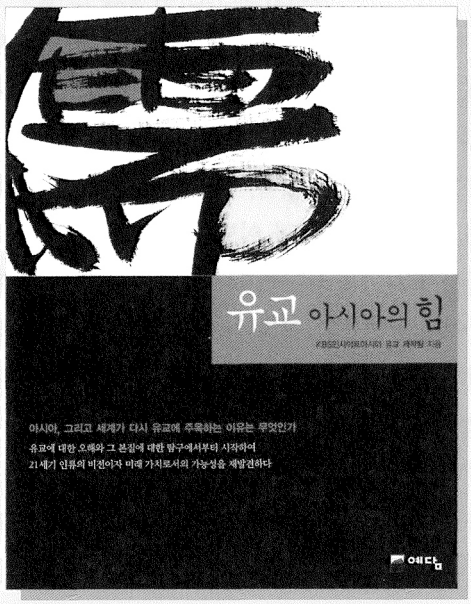
손을 들고 내게 묻네 내 무슨 말을 하지
멀리서 한번 웃고 좋은 중매 되었다오.
세 사람이 어울려 백옥첩(白玉牒)을 구경하니
황금의 두어 글자 너무도 기이하이.
유하주(流霞酒)라 두어 잔에 뜻을 서로 전해주니
붉은 구름 뭉게뭉게 온누리 가득 찼네.
몸을 돌려 너를 보니 어디로 너는 갔나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매화가 되었느냐.
흥그려 읊으면서 화표주(華表柱)로 날아오니
넓은 벌 아득아득 산 언덕 무너졌네.
상전(桑田)은 바다 되고 바다는 뭍이 되어
곤명(昆明)이라 천겁회(灰)는 다 식은 지 오래였네.

河西先生이 8세때 趙元紀관찰사와 聯句한 詩

감사 : 완산에 신숙하니 배꽃구경에 배가 불러라
信宿完山 飽梨園之風景
하서 : 풍패에 머무니 매정의 달빛을 실컷 보았도다
滯留豊沛 饜梅亭之月光
감사 : 그대의 시와 글씨는 두보 이백 왕희지와 같도다
兒郎詩筆 杜白王右輩
하서 : 선생의 정치는 소신신 병길 한연수와 짝합니다.
先生處事 召吉延壽群
감사 : 오백년의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하늘은 반드시 성인의 일어남을 기다릴 것이오.
五百年之期 已過 天必待聖人之興
하서 : 수천년의 황하가 바야흐로 맑아지니 지령은 응당 명세의 호걸을 낼 것입니다.
數千載之河方淸 地應生命世之傑

金忠烈 박사의 저서

1. 中國哲學 Ⅰ,Ⅱ: 온누리. 1988
2. 中國思想 Ⅰ,Ⅱ: 온누리
3. 김충열 교수의 유가 윤리 강의 : 예문서원 1994
4. 고려 유학사 : 고대 출판부. 1987
5. 중국 철학사 : 예문서원. 1994
6. 모택동 사상론 : 일월서각. 1985
7. 노자강의 : 예문서원. 2004
8. 중용대학강의 : 예문서원. 2006
9. 남명학 연구 : 예문서원. 2006



유교, 아시아의 힘

KBS인사이트아시아 유교 제작팀 지음

예담 | 16,800원

河西先生의 自敍傳的 詩에 대하여

-詩 華表鶴과 病鶴을 중심으로-

김 재 수 광주교대 명예교수

Ⅰ. 들어가는 말

河西先生은 天稟을 타고난 詩人이다. 性情이 至正에 이른 풍부하고 예민한 感受性으로 詩興을 노래한 시인이다. 그가 19살에 성균관에서 지은 「七夕賦」가 서울에서 노래되어 일약 명사가 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칠석부」를 소합이라는 기녀가 노래하여 서울에 널리 퍼졌는데, 그 기녀가 17세로 7月7夕날에 죽었다는 일화가 梁應鼎선생의 시 「悼妓蘇合詩」에 전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河西선생의 詩作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自然之情 혹은 詩情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道學的 마음이다. 앞의 것이 순수 詩心이 추동하는 圓心力이라면 뒤의 것은 道學에의 求心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서로 긴장하고 견제하면서 하서의 시 세계가 펼쳐진다." 고 박희병 교수는 지적했다.

하서의 시는 事物이나 경치를 노래하는, 즉 物的 대상을 객관적으로 읊은 시보다는 感懷, 懷古, 慶賀, 哀傷, 酬贈 등 거의 남과 나의 감정적 교류를 표현하는 서정시를 많이 썼다. 이는 河西가 자신의 詩的 의식공간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河西는 벗이나 제자나 스승과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 이런 詩에 河西의 다정다감한 인간적인 풍모와 풍부한 詩情이 잘 드러나 있다. 벗이나 知人들과 이별하면서 준 離別詩가 특히 유명했다고 한다. 서울에 올라갔더니 하서의 이별시가 선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려준 錦湖 林亨秀선생의 詩가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만남과 이별에는 자연 술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놓아 벗들과 격의 없이 交感할 수 있게 해주었고, 도도한 詩興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시에는 술이 따르는 게 당시 선비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지만, 특히 하서에게서 술을 떼어놓고 시를 이야기할 수 없다. 술과 관련되지 않은 시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술을 들면 시를 읊었다. 그에게 술은 仁宗 승하와 을사사화로 빚어진 참담한 현실에 대한 격정과 울분과 좌절을 삭히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河西의 哀輓詩에는 뛰어난 작품이 많다. 삶을 마감하고 죽음 길을 떠나는 사람을 애도하는 輓詩에는 하서의 인생에 대한 깊은 정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저 형식적으로 써 주는 만시가 아니라 죽음을 접했을 때마다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정감어린 시를 썼던 것이다.

Ⅱ. 神仙사상이 표현된 道敎的인 詩

지금까지 河西의 문학에 나타나는 道敎的 詩에 대해서는 애써 논의를 회피해 왔다. 이는 문묘에

配享된 정통 道學者로서의 河西의 位相에 이롭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더듬어 보면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이념으로서는 儒敎를 철저히 신봉했지만, 문학적인 세계에서는 도교적인 신선세계를 넘나든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性情의 바름을 표현하는 詩와 文人畵만으로는 인생의 이상과 꿈을 노래하는 내면세계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신선세계로의 詩的 想像力을 통해 逸脫을 꿈꾸었던 것이다.

물론 河西가 도교적 신선사상에 빠져든 것은 아니다. 도교의 신선세계와 불교의 윤화사상의 허망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시절이나 또는 삶에 대한 좌절과 회의를 느꼈을 때에 도교적 신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그의 시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道學者로서 河西는 道敎思想을 부인했지만 문학적인 세계에서는 도교적인 세계에 넘나들었던 것이다. 이는 河西 詩心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했던 것이다. 현대 여러 학자들은 河西가 도교적인 신선사상에 넘나듦으로써 오히려 도학자로서의 경직된 사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고 넉넉한 사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河西는 理氣를 회통한 大心의 철학자다. 배타보다는 포용, 분석보다는 회통을 중시하였고, 모든 사물을 같은 생명차원에서 교감한 철학자다." 라고 김충렬교수는 평가하였다.

河西의 詩 가운데 도교적인 신선세계와 관련된 어휘나 시구가 들어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 도교적인 세계를 소재로 삼아 쓴 시나 도교적인 시 세계를 표현한 시들을 뽑아보았다.

- 꿈에 청학동에 노닐다.(夢遊靑鶴洞) 1권 : 476
- 화표학(華表鶴) 1권 : 526
- 화표학(華表鶴) 3권 : 393
- 천주봉에서 달을 구경하다.(天柱峰翫月) 2권 : 272
- 병든 학(病鶴) 2권 : 242
- 혼돈주가(混沌酒歌) 3권 : 394
- 중길이 시를 구하다.(仲吉求詩) 1권 : 336
- 주거사 린에게 주다.(贈周居士麟) 1권 : 439
- 채중길의 문계시운에 차하다.(次蔡仲吉聞鷄詩韻) 1권 : 518
- 구절포가(九節蒲歌) 1권:527
- 두자미가 취하자 종문이 고삐 잡은 그림(杜子美醉後宗文捉轡圖) 1권 605
- 채중길구견오시사일록중소부약간수(蔡仲吉求見吾詩寫日錄中所付若干首) 1권 : 610
- 제양생서(題養生書) 2권 : 22
- 농학(籠鶴) 2권 : 137
- 서산사기중길(棲山寺寄仲吉) 2권 : 426

• 옥당실학운(玉堂失鶴韻) 2권 : 535

• 우음(偶吟) 2권 : 137

하서와 절친했던 벗 가운데 한 사람이 蔡仲吉이다. 訥齋 朴祥선생과 新齋 崔山斗선생의 제자였던 그는 道敎에 심취하여 유가적인 입신을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도교적인 수련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늘 河西에게 詩文을 보내오고 河西에게 시를 요구하였다. 하서는 그의 시문을 격찬하였다.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의 박학과 탁월한 문장력에 감탄하면서도 도교적인 세계에 빠져든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평생 잊지 못하는 마음의 벗인 그와 시를 주고받으면서 자연 도교적인 시를 쓰기도 했다. 또한 장성 삼계에 살면서 도교에 심취한 71세의 노인 周居士麟이 河西 선생을 방문하여 담소한 적이 있다.

Ⅲ. 河西先生의 自敍傳的 시 華表鶴과 病鶴

시란 시인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의 깊은 내면의 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나 어떻게 형상화되었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河西의 모든 시는 그의 내면세계를 드러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론일 따름이다. 여기서는 河西선생이 자신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시를 그의 자서전적 시로 보고자 한다. 즉, 하서의 일생이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표현된 시를 자서전적 시로 보고자 한다.

하서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을 鶴으로 표현하기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의 이름에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화적 동물인 〈麟〉이 들어간 것은 선생의 고결한 인품과 학문과 운명을 예시한 듯한 감이 든다. 그러나 하서는 자신을 결코 기린에 비유하지 않고 학에 비유하길 좋아하였다. 華表柱에 날아와 앉아 신선이 되어 저 먼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날아가고픈 꿈과 이상을 읊은 「화표학」이라는 시와 요순시대와 같은 유교적 이상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높은 꿈을 꾸었다가 현실사회의 질곡에 좌절하여 부질없이 헛된 꿈을 꾸었구나 하고 자탄하는 「병학」이라는 시가 있다. 앞의 시가 천진무구한 樂園的 세계를 꿈꾸는 순수한 시 세계를 표현한 心理的 自敍傳이라면 뒤의 시는 현실의 높은 절벽에 좌절하여 젊은 날의 이상이 헛된 꿈이었음을 자탄하는 現實的 自敍傳이라고 할 수 있다.

Ⅲ-1. 心理的 自敍傳이라고 할 수 있는 華表鶴

화표학을 읊은 시는 세 수이다. 「玉堂鶴韻」은 成均館 수학 시절에 쓴 시니 젊은 시적의 시이다. 「화표학」이라는 시가 두 수 있는데, 백승종교수는 1권 526~527쪽ㄴ 시는 젊었을 때의 시이고 3권 393쪽의 시는 만년작이라 보았다. 백 교수는 만년작이 하서의 심리적 자서전이라 보았다. 여기서는 백 교수의 설을 그대로 따른다.

끝없는 벌판 갈 길 멀다　　平原極望路迢迢
천 길 화표주, 하늘로 솟았네　　有柱倚空千尺高
검정 치마 흰 저로기, 어디로 가는 길손일까　　玄裳縞衣何處客
표현히 날아든 하늘 신선　　飄然自是天仙曹
서글퍼 맴맴 돌아 오래도록 머뭇머뭇　　徘徊怊久不去
옛 성곽엔 쑥대만 욱었다네　　向來城郭皆蓬蒿
길다란 울음소리 하늘에 번지오　　長吟一聲天宇闊
만리를 부는 바람 눈빛 터럭 불어가네　　萬里斜風吹雪毛

백승종교수는 이 「화표학」이야말로 河西가 일생동안 지향해온 바를 단 몇 줄로 요약한 것이라고 믿었다. 시를 음미해 보면 河西가 자신을 화표학과 同一視했다는 것이다. 하서는 신선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표학」은 하서의 심리적 자서전이라고 보았다. 화표주란 옛날 중국 遼라는 지방에 丁令威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는 영산에서 열심히 道를 닦았고 드디어 학이 되었다.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丁선비는 공중을 몇 바퀴 맴돌다가 높은 기둥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화표주인데 그 꼭대기에 사뿐히 내려앉은 그는 한편의 시를 읊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신선세계로 떠나갔다는 것이다.

이 시에 대한 백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보자

"님에게 화표주란 고향입니다. 안식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님은 생각하셨던 듯 합니다. 그러므로 화표주 꼭대기에 머물 시간은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표주는 티끌세상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완전히 절연되지 않은 묘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님에게는 다름 아닌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줄에서 님은 '하늘 신선'으로 나타납니다. 한 마리 학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신선은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론가? 그야 물론 하늘나라 신선 세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님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욕심도 다툼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낙원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님의 내면적 지향이 여기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쉽사리 세상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 다음 줄에 드러납니다. 님은 '머뭇' 거리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님은 간주했습니다. 갈 데까지 간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별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님은 하지만 세상을 작별합니다. 영원의 세계로 날아오릅니다. 한 두 오라기의 깃털을 바람에 떨구어 놓고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님이 그처럼 염원하던 신선세계로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길다란 울음소리'를 창공에 남겨 놓은 것은 바로 그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님이 남기고 간 울음소리, 깃털, 한 두 오라기란 님의 시입니까, 논문입니까?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입니까?"

Ⅲ-2. 病鶴-現實的 自敍傳

화표학이 하서의 심리적 자서전이라면 병학은 그의 현실적 자서전이다.

누구나 정신적 이상향으로서 신선을 꿈꿀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은 歷史的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宿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河西의 현실적 自我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을까. 도학자인 하서는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큰 뜻을 품고 살았었다. 하서의 그러한 뜻은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는 큰 뜻을 품고 살았었다. 하서의 그러한 뜻은 유교적인 뜻을 표현한 詩文과 天命圖에 잘 드러나 있으나, 여기서는 하서의 현실적 자아가 자서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음(偶吟)

때 못 만난 도연명이 어찌나 한스런지 / 經綸하던 큰 뜻이 東籬에 묻히다니
술 속에 빠진 것은 단순한 일 아닐진대 / 堯舜 기대 마음에 품은 줄 뉘 알리오

요순시대 정치를 펼치려는 큰 꿈을 품었다가 때를 못 만나 좌절했던 도연명을 한스러워 하는 시이다. 이 시는 도연명과 동일시하여 河西 자신의 처지를 읊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가 籠鶴이다.

조롱 속의 학 (籠鶴)

영산에 태화하니 개 중의 건슴이라 / 雲松에서 춤을 추고 달 속에서 잠을 자네
조롱 속에 그릇 들어 갈 길이 희미하니 / 이따금 울음소리 먼 하늘을 뚫는다오

仁宗이 승하하고 을사사화로 자신의 모든 꿈이 실현될 실이 없음을 인식한 河西는 자신의 티끌 세상의 조롱 속에 잘못 갇힌 鶴으로 비유했다. 이러한 생각이 더 깊어지자 조롱 속의 학이 병든 학으로 바뀌는 시가 나타난다.

棲山寺寄仲吉

병든 학은 솔 이슬에 자주 놀래고 / 모래 뚝에 울어대는 떨어진 기러기
옛 노던 곳 속절없이 눈에 선하니 / 어느 날 다시 서로 찾아볼거나

蔡仲吉과 함께 옛날에 놀던 곳이 눈에 선하다고 추억하면서 이제 자신은 병든 학이 되었다고 말한다. 병든 학과 모래 뚝에 떨어져 우는 기러기는 河西와 蔡仲吉을 지칭할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하서의 병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두자미가 취한 후 종문이 고삐 잡은 그림(杜子美醉後宗文捉轡圖)

깊은 밤 밝은 달에 일어나 절 올리며
美人 멀리 바라보니 저 하늘 한 곳일레
병든 학 슬피 울면 만리를 시름하고
마구에 엎딘 늙은 말 부질없이 설레기만
白花潭 못 머리라 萬里橋 다리 가에
홀로 해를 마치며 한없이 방황하네
세상에선 공연스레 詩豪로만 알 뿐이지
어느 누가 혁혁한 忠心을 인정하리
시와 술에 정 붙인 건 오직 허튼 수작일 뿐
머누달은 저 구름과 아득히 어울려라
여보소 나를 위해 좋은 비단 가져다가
태양에 기울어진 해바라기 그려주게
백년이라 외론 신하 생각 잊기 어렵다오

이 시에서는 河西의 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신을 병든 학이라고 한 까닭이 잘 표현되어 있다. 仁宗과 함께 도학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참담한 좌절을 겪고 나서 仁宗을 그리워하지만 仁宗은 저 하늘 끝에 있을 뿐이어서 河西 자신인 병든 학은 슬피 울면서 萬里를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끝없이 홀로 방황하면서 시와 술에 정을 붙이며 울분을 삭혀보지만 이 모든 것은 허튼 수작일 뿐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仁宗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외로운 신하임을 절절히 노래하고 있다.

병든 학(病鶴)

산 언덕에 슬피 운들 아는 자 뉘라더뇨	山畔哀鳴知者誰
날개를 드리운 채 마른 가지 기대었네	還堪垂翅倚枯枝
하늘가를 바라보니 구름은 아스랗다	回看天際雲猶迥
만리를 날을 생각 부질없 가졌구려	萬里歸心空自持

이 시에서 河西는 자신을 병든 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산 언덕에 슬피 운들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날개를 접고 마른가지에 기대인 모습은 바로 河西 자신인 것이다. 유교적인 도학정치를 펴고자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만리를 날을 생각을 부질없이 가졌구나 하고 회환에 잠겨 자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짧은 시 한편에 河西先生의 한 평생이 모두 집약되어 있으니 河西先生의 현실적 자서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2006년도 정기 총회 및 학술강연회 열림

2006년 12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200여명의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 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박래호 총무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와 문묘향배를 올리고 백록동학규를 이준영씨가 낭독하였다.

박종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강 유한상 선생의 격려사와 이영복 성균관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용숙 상임 부회장의 경과보고와 김병근씨의 재정보고, 이준영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07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통과시켰다.

산앙회가 활성화되려면 회원이 1,000명은 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구 담수회는 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이었다.

대구에서는 이곤환 부회장, 부산에서는 김진웅씨가, 원광대 도서관 부관장인 박경연씨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강연으로는 「유림열전」이라는 책을 쓴 조선대학교 사학과 이종범 교수가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다. 끝까지 절의를 지켜 전국 유림의 존경을 받았던 김인후 선생과 20년간 유배 생활 후 관직에 나아가 해박한 지식으로 임금의 찬탄을 받았던 미암 유희춘 선생의 삶이 지닌 역사적 의의에 대해 열강하였다.

박종달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수건을 선물하였고, 박종달 회장, 신형철 광주향교 전교, 은진송씨 동춘당 후손이 화환을 증정해 주었다.

▶ 격려사
동강 유한상(본회 및 성균관 고문)

오늘 이 산앙회에 호남유림 대다수가 참여하여 하서 선생의 생애와 이력과 도학과 문장과 절의를 講究함은 참으로 이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리는 시대에 敎化가 지대하며 유교 사문에 사기 진작이 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선생의 문헌에 의하여 우리들이 알지 못한 바를 알게 되고 해득하지 못한바를 해득하게 되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앙회 박종달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이 이런 모임을 개최하는 노력에 치하를 드리며 하서 미암 두 선생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2006. 12. 13

▶ 祝辭
李永福(본회 부회장 및 성균관 부회장)

제가 평소 존경하는 畿湖 선배 유림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와 같이 성대하고 뜻있는 山仰會 2006년 정기총회와 제 18회 학술강연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제가 축사를 한다고 과분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山仰會 총회에 참석하면서 河西 先生을 백세의 師宗으로 숭앙하고 필암서원을 聖學 수련의 도량으로 영구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河西 선생의 道學과 節義와 文章을 연구하여 선생의 眞儒哲學을 계승하고자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오한 선생의 학문과 조행 그리고 절의와 문장이 탁월해서 따를 수는 없을지라도 선생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행적을 배우고 익혀서 儒敎宗團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여야겠습니다. 유림 조직을 현대화하여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윤리와 도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우리 필암서원 山仰會가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儒林 모두는 남은 여생을 걸고 21세기 새로운 유교 진흥을 위해 총동원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리하여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하서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서 선생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13

▶ 山仰會 임원 전주 방문 하서 학술강연회 전주개최협의

지난 5월 10일 10시 30분 산앙회 임원들이 전주를 방문하여 2007년 산앙회 하기 학술강연회 전주 개최 문제를 전북 유림들과 협의하였다. 전북 유림회관인 忠孝館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운염, 김종섭, 양만정, 이하영, 이세환 등 전북 유림과 김용숙, 박래호, 김재수 산앙회 임원, 본손인 김병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팽수 교장이 참석하였다.

전북유림회장 이하영 박래호 총무의 학술강연 전주 개최에 대한 취지를 설명듣고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개최 일자로는 6월 21일 (목요일)이나 6월 28일 가운데 선택하기로 하고 개최 장소로는 전주 학생회관, 시청대회의실, 덕진구청 가운데서 선정하기로 했다. 강연 주제에 대해서는 전북에서는 하서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 하서 선생을 잘 알릴 수 있는 강연을 하기로 했다.

일재 이항 선생에 대해서는 많이 강연하였으니 제외하고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재해석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목산 이기경 선생과 전북이 배출한 유학자를 다루자는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崔英成 교수에게 청탁하기로 결정하고, 하서에 대한 강사는 김재수 편집위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경비 마련문제 청중동원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본회 부회장인 이하영 전북유림회장이 맛있는 전주 비빔밥과 복분자술을 대접하였다.

▶ 松崗 李載承 부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균관 유도회 전남회장이며 본회 부회장이신 이재승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은 유림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유교식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산앙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故人을 애도하였다.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 본회 朴鍾達 회장 산앙회 고문 초청 회식

박종달 산앙회 회장은 12월 6일 고문들을 초청하여 산앙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표하고 미가식당에서 성찬을 대접하였다. 동강 유한상, 수암 민우식, 유당 최상옥, 차산 안진오 고문이 참석하였고, 오인균, 이영복, 김용숙, 장원석 부회장과 박래호 총무, 김재수 편집장이 배석하였다.

박래호 총무가 내년 하기 학술강연을 전주에서 개최해 보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오인균 부회장이 동의하였으며 운정 이영복 부회장은 앞으로 영남에 가서도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화제는 퇴계학회인 〈도운회〉가 高峰 奇大升 선생을 모시는 월봉서원과 공동으로 광산구에서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경상도에서 300명 현지에서 30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도 서원 연합회를 통해 합동으로 연계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河西 연구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안진오 교수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 山仰會 임원 회의

산앙회 임원회의가 3월 23일 16시에 예원식당에서 있었다. 박종달 회장을 비롯하여 오인균 부회장, 김용숙 상임부회장, 장원석 부회장, 김병근 감사, 박래호 총무, 양희택 재무, 김재수, 이충원이 참석하였다. 박종달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본회의 활성화 방안(신입회원 영입, 회비징수) 춘향제 참례 및 강연회 건, 2007년 하기 학술강연 개최의 건, 회보 발간의 건등이 논의되었다.

춘향제에서 초헌관으로 선임된 변온섭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회장이 「하서 선생이 현대 유교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강연하기로 했다.

2007년 하기 강연회에는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김용숙, 박래호, 김재수가 정운염, 양만정, 이하영, 김종섭 등 전북 유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위임하였다.

강연주제, 연사 선정, 차량 및 관객 동원 등이 논의되었다. 강연 주제로 하서와 일재 이항, 하서와 목산 이기경, 하서와 간재 등이 논의되었다.

▶ 본회 편집위원 金東河 교수, 高大에서 河西 文學 연구

본회 연구위원이며 편집위원인 金東河 교수(瑞江大學)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하서 선생의 문학을 연구한다. 연세대학교에서 靑蓮 이후백(李後白)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교수는 이번에 다시 고려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하서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본회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 산앙회 동정

源齋 鄭尙允 : 1월 17일 광주향교 전교 취임
西山 朴泰根 : 4월 13일 광주향교 유도회장 당선
蘆江 朴來鎬 : 5월 31일 성균관 典仁 겸 자문위원 위촉

▶ 河西先生 추모 春香祭 4월 3일에 거행되다.

河西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4월3일 필암서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춘향제에는 유한상 성균관 고문, 정운염 전북유림대표, 윤열상 충청유림대표, 오문복 제주유림대표 등 유림과 후손, 군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변온섭 회장이 초헌을, 전북유림 원로 유일종님이 아헌을, 제주도 유림 원로 오문복님이 종헌을 각각 맡았다.

진설은 전북 이세환님이, 집례는 경남 이홍규님이, 大祝은 서울 한시협회 윤열상 이사가 맡았다.

제례를 마친 뒤 변온섭 회장이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이 21세기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강론을 했다.

변 회장은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유림들은 사욕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과 울산 김씨 대종회 김달수 회장이 화환을 보내왔다.

▶ 제5회 추모 하서 김선생 전국한시백일장 열려 부산에서 온 서정민 선생 장원 차지

제5회 추모 하서 김선생 전국한시백일장이 4일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묵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하서 학술재단 김상홍 이사장과 울산김씨 김달수 대종회장이 화환을 증정했다.

올 장원은 부산에서 온 후학 서정민 선생이 차지했고, 차상에 안정영(부산), 김석환(부산), 차하에는 정상호(서울), 김홍규(부산), 이창섭(경북)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장원을 차지한 백제 이종영 선생은 심사평에서 "올 장원시는 그 문맥과 문장력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口難盡設筆難收(구난진설필난수)'에서 하서 선생의 위대함을 잘 표현했다"고 말했다.

시제는 仰拜祐東祠(앙배우동사)이고, 압운은 秋(추), 儔(주), 樓(루), 求(구), 收(수) 였다.

〈장원시〉

仰拜祐東祠(앙배우동사) – 後學 徐廷玟

天生湛老幾春秋(천생담로기춘추)
節義堂堂日月儔(절의당당일월주)
墨竹賜圖留祐廟(묵죽사도류우묘)
卵山落淚照然樓(난산낙루조연루)
巍巍道德倫常植(외외도덕윤상식)
赫赫文章理學求(혁혁문장리학구)
仰拜騷人欽慕切(앙배소인흠모절)
口難盡設筆難收(구난진설필난수)

하늘이 담재선생을 내보내신지 몇 해이던고
당당했던 충절과 의리는 해와달을 짝할만 하네
하사받은 묵죽도는 우동사에 모셔져 있고
난산에 떨어진 눈물 확연루에 비치는 구나
위대하신 도덕은 삼강오륜 뿌리내렸고
빛나는 문장은 성리학을 구현하셨네
참배하는 소인묵객 흠모하는 마음 간절하니
입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붓으로 서술하기 어렵구려

(해석 : 노강 박래호)

▶ 김택수 문정공파 도유사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발간

김택수 문정공 도유사는 아동문학가요 시인인 김병효씨가 쓴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를 자비로 발간하여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하서 선생의 전기나 소설이 있었으면 청소년 교육에 좋은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왔던 도유사는 8순을 넘긴 김병효 시인이 하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썼다는 것을 알고 문중일에 조예가 깊은 김종섭, 김정수, 김용숙, 김진웅, 김재승, 김재수에게 원고 내용을 자세히 심의 검토하게 해 자담으로 책을 발간했다. 삽화와 사진을 넣어 청소년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편찬한 이 책은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읽도록 하고 독후감을 시상하기로 했다.

▶ 河西路 지정에 대한 건의서 제출

필암서원에서는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를 기리는 하서로를 지정해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하였다. 광주시의 도로명은 78개인데 文人은 5곳, 武人은 7곳, 예술가는 3곳이나 시내 중심가의 도로명은 武人의 호명을 따서 지었고, 文人의 호명을 붙인 도로명은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문화수도를 지향하려는 광주시의 정책과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장성간 도로인 北門路를 河西路로 지정해 줄 것을 유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김택수 문정공 도유사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수고를 하였다.

▶ 유도회 거창지부 100여명 청절당에서 총회가짐

지난 4월30일 성균관 유도회 거창 지부 김광수 회장과 김태근 월천 지부장은 회원 100여명과 함께 필암서원의 우동사를 알묘하고 청절당에서 2007년도 총회를 가졌다. 이날 본 회보 150부를 기증받고 성금으로 10만원을 본 회에 헌성하였다.

▶ 全錫洪님 일행 우동사 봉심

전석홍 전 전남지사는 정치계 및 교육계 원로 25명과 함께 필암서원 우동사를 알묘하고 본원 이병현 집강으로부터 서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본원에서는 河西集 2질을 기증하였다.

▶ 證友會員 39명 알묘

울산 김씨 문정공파 전도유사 金東準님은 전국 증권회사 사장들로 구성된 증우원원 39명과 함께 알묘하였다. 본원 박래호 집강이 서원의 연혁을 설명하였다. 〈위대한 인물 하서선생〉이라는 작은 책자를 특별히 만들어 전달했다. 이 날 金英 전도유사와 詠歸書院別有司 全鎭午씨가 동참했다.

山仰會 임원

고문	柳漢相	
	閔祐植	
	崔相玉	
	李永福	
	安晉吾	
	鄭雲炎	
	金老洙	
	金宅洙	
	金 英	
	金鍾燮	
會長	松石 朴鍾達	
부회장	素巖 金容淑	상임
	然哉 李昆煥	대구
	愚公 宋俊彬	충청
	鰲山 吳仁均	광주
	槿菴 張源碩	광주
	海松 申斗千	전남
	紹强 李夏永	전주
총무	蘆江 朴來鎬	
총무간사	李忠源	
재무	平齋 梁熙澤	
재무간사	김재국	

감사	誠軒 李準泳
	仁松 金炳槿
간사	栢陽 李忠源
	金載國
지역간사	鳳耕 羅天柱
	申文秀, 晩松, 月汀
	尹柱男, 克齋
	李世煥, 葛川
책임연구위원	道學 吳鍾逸, 臥龍
	道學 朴來鎬, 蘆江
	節義 金鎭雄, 晩巖
	文藝 李柄玹, 淸下
	文藝 金梓洙, 好然
	文藝 金長洙, 晨溪
산앙회 편집위원	委員 金梓洙
	委員 金長洙
	委員 李炳玹
	委員 朴來鎬
	委員 金東河

入會를 환영합니다

보성		염철호	廉喆浩	장성	황용	김재근	金在根
보성		채길삼	蔡吉三	장성	황용	고재일	高在鎰
영암		신희범	愼憙範	장성	황용	서경택	徐景澤
담양		박광호	朴光鎬	장성	황용	김병준	金炳俊
장성	황용	황용식	黃龍植	곡성	옥과	정득채	鄭得采
장성	황용	김상옥	金相沃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本會 會長	朴鍾達	1,000,000
부회장	장원석	200,000
광주향교전교	정상윤	200,000
광주향교유도회장	박태근	200,000
거창유도회 월천지회		100,000
상근부회장	김용숙	200,000
편집주간	김재수	200,000
문정친목회(회장 김상헌)		300,000
본회총무	박래호	100,000
간사	신문수	100,000

알　　림

1. 본회 제19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전주에서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요일) 10 : 30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청 대강당
○ 주　　제 : 河西 金麟厚 선생의 道學에 대하여 – 金忠烈 박사(前高大 철학과 교수)
　　河西 先生과 全北 儒學 – 崔英成(국립전통 문화학교 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① 河西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앙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앙회 사랑방' 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장성축산농협 175809-52-099266 (예금주 : 필암서원 산앙회 김용숙)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축협 175809-52-099266)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9-832-4562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姓名:	本貫:	雅號 :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	學歷 및 經歷 :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앙회 회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형곤 씨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산앙계를 "산앙회"로 발족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晋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 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焌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晋吾 산앙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 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 12.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 12. 17일 산앙회 정기 총회. 安晋吾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악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大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산앙회 정기총회 및 학술 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를 고려대 경제학과 이헌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1500부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 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 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 12. 8일 산앙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 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종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 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 보는 河西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 란 주제로 변은섭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